

배포 일시	2022. 12. 2.(금)		
담당 부서 (총괄)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 안진애 (044-201-3516)
		담당자	서기관 홍복의 (044-201-4665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, 현지 의회 상원 통과

-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철도분야 투자개발형사업 사업권 확보 근거 마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2월 2일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 추진 중인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(이하 "본 사업")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지 시각 12월 1일(목) 파라과이 의회 상원에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.
  - 특별법안은 추후 하원의 검토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,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통령 공포를 통해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.
  - 특별법안에는 파라과이 정부와 한국 컨소시엄 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금조달 등에 대한 협력과 한국 컨소시엄이 발주처로부터 사업권을 보장받는 법적 근거조항이 담겨있으며, 향후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 수주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.
- 그 간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사장 이강훈, 이하 "KIND")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('20.11-'21.6)을 통해 초기 단계인 사업발굴 검토부터 주도적으로 참여 하였으며, '21년 9월에 국토교통부는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와 사업협력 MOU를 체결하였다.

- 특히, 사업발굴 단계부터 본사업을 주도해온 KIND는 현지에서 특별법안 제정을 지원하고, 현지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수주에 노력해왔다.
  - 향후 한국기업들은 최대 18억불(건설사업비 5.5억불 및 운영비 10억불) 규모의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나아가 한국 최초로 해외에 한국형 철도건설·운영시스템을 통합 패키지로 수출한다는 의미가 크다.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“국토교통부는 KIND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며, 본사업의 성공을 통해 향후 중남미 지역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- 아울러 KIND 이강훈 사장은 ”과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사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Team Korea 사업발굴 및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, 우리기업 해외 진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“고 밝혔다

담당 부서 (총괄)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안진애 (044-201-3516)
		담당자	서기관	홍복의 (044-201-4665)
<공공기관>	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업개발본부 인프라사업실	책임자	실 장	고준석 (02-6746-7351)
		담당자	차 장	장석원 (02-6746-7466)
			과 장	한 국 (02-6746-7467)



## 별첨

#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현황 및 사업구조

### □ 사업개요

- 발 주 처 : 공공사업통신부(MOPC), 철도공사(FEPASA)
- 사업규모 : 노선연장 43.2km, 차량기지 1개소, 역사 7개소 등
- 사업방식 : 투자개발형 사업(BOT)
- 사업금액 : 건설사업비 약 5.5억 불, 운영비 10억 불
- 사업기간 : 양허기간 34년 (건설 4년/운영 30년)
- 참 여 사 : (한국) 현대ENG, KIND, 계룡건설, LS Electric, 현대로템, (파라과이) 현지업체



### □ 사업노선도



### □ 사업구조도

